



눈 쌓인 전주 한옥마을.

/전북일보 안봉주 기자

뜨끈뜨끈 한옥 구들방서 근심걱정 녹네 그려~

‘조선시대로 시간여행’ 전주 한옥마을

전북

‘날렵하게 솟은 지붕, 매끈한 여체(女體)를 연상시키는 처마선, 투박한 돌담과 흙담, 그리고 온돌방과 한지문, 대청마루, 장독대와 야궁이...’ 먼 시대를 거슬러 조선시대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다. 바로 한옥이다.

아파트나 빌라·단독주택이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이 시대에는 흔치 않은 모습이다. 이런 현실에서 고살길(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둔 기와집은 색다른 정취로 다가온다. 길을 지나던 행인의 눈길을 한번쯤은 사로잡기 충분하다.

전주 한옥마을이 바로 이런 곳이다. 한국의 옛 가옥들이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생활공간으로 활용된다. 한국 고유의 멋이 느껴진다. 요즘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전통의 진수를 만끽하기 위해 발걸음을 하자. 엄동설한의 계절, 뜨끈뜨끈한 한옥 구들방에서 허룻밤 묵다 보면 몸과 마음에 쌓인 걱정거리가 말끔히 지워질 것이다.

700여 채 기와집 거닐며

목공예 만들고 전통 놀이하고

사랑방서 붓 들고 시서화 쓰고

오목대·한벽당 등 문화재 산재

체험·체류형 관광객 급증

걷는 맛과 체험의 즐거움이 있는 한옥마을에는 현재 700여 채의 전통가옥이 모여 있다. 전주시 풍남동과 교통마을에 위치한 한옥마을은 굽이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도 한나절이면 둘러볼 수 있다.

한옥마을은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한옥마을 입구 태조로에는 드라마 ‘용의 눈물’ 촬영지인 경기전(사적 제339호)이 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영정이 있는 곳으로, 경내에는 전주이씨 시조와 시조비의 위패가 모셔진 조경묘가 있으며 전주사고(조선 왕조실록보관소)와 예종대왕 태실비가 있다. 또 당대에 그려진 왕의 초상화, 태조어진(국보 317호)이 있다. 경기전 건너편에는 영화 ‘악숙’을 찍은 곳으로 유명한 전통성당인 있다. 전통성당은 아름답고 웅장한 서양 근대건축의 진수를 보여준다. 프랑스인 신부가 중국인 벽돌공 100명을 데려와 1908년부터 6년간 로마네스크·비잔틴 양식으로 지은 건물이다.

전통문화를 도울 수 있는 공간도 즐비하다. 한옥마을에 들어서면 공예품전시관, 전통술박물관 전통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등이 펼쳐져 있다. 공예품전시관에서는 전주한지, 합죽선, 태극선 같은 지역 특산 공예품을 볼 수 있다. 목공예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앞마당에선 윷놀이, 투호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르윈호텔 뒤에 있는 전통술박물관은 걸모습부터 독특하다. 시설내부에는 ‘계영원’과 ‘양화당’이 있다. 계영원은 ‘잔이 넘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박물관의 전시공간이자 상품관이다. 전국에 산재한 전주 명인들의 전통 술들을 전시, 판매한다. 자체 기획한 술잔이나 모주 등 기양주 관련 기획 상품도 만날 수 있다. 계영원 옆에는 양화당이 있다. 술을 빚는데 쓰이는 도구와 발효실, 숙성실이 따로 마련돼 있어 제조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한옥생활체험관은 솥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니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전북일보 박형민 기자

은’ 자 모양의 사랑채와 안채가 나온다. 행랑채와 안마당, 사랑마당도 위치해있다. 세화관 선비방에는 붓과 벼루, 한지가 비치돼 있어 옛 선비들이 즐겼던 시서화(詩書畵)를 경험할 수 있다. 안채에서는 단체로 온 투숙객이나 학생들에게 예절교육, 다도(茶道) 등을 가르쳐준다. 다경루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아쟁, 장구 등의 전통악기 공연과 선(禪)과 다례(茶禮)를 배울 수도 있다. 마당에서는 윷놀이나 투호를 즐길 수도 있다.

한옥마을 동쪽 끝 언덕에는 이성계가 고려 말 왜구를 토벌하고 돌아가며 잔치를 열었던 오목대가 있다. 한옥마을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기린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전주 팔경의 하나인 한벽당이 우뚝하다. 한옥마을과 연계돼 전주의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은 조선 후기 문루 건축양식을 가장 잘 보존한 문화재로 꼽힌다. 또 풍남문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인 향교가 있다. 이곳에는 공자를 비롯해 안자, 자사, 증자, 맹자 등 다섯 성인의 위패와 우리나라 동방 18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이밖에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찬찬히 둘러보면 전통한지로 만든 부채를 전시한 부채박물관을 비롯, 국내 유일의 모자 전문 박물관인 루이엘 모자박물관, 세계의 희귀 명품 카메라를 모은 여명카메라 박물관 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전북일보 김세희 기자

황실 체험...서당서 하룻밤

전통 살린 숙박 ‘인기몰이’

전주 한옥마을은 해가 갈수록 체류형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숙박업소들이 한몫했다.

한옥생활체험관은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뿐만 아니라 숙박 편의도 제공한다. 하룻밤 묵는데 2인 1실 기준으로 6만~12만원, 숙박 요금에 아침식사(5점 밥상)가 포함된다. 유기그릇에 담아 내온 찌개와 반찬 맛은 잃었던 식욕을 되찾게 해준다.

전주 향교의 부속 건물로 서당 공부를 마친 청소년들이 시험공부를 하던 양사재(養士齋)도 숙박을 제공한다. 방 6개에 최대 24명이 묵을 수 있다. 2인 1실 기준으로 식사를 포함해 가격은 6~10만원 선이다.

민박형 한옥도 여러채 있다. 넓은 마당에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를 갖춘 동락원, 조선의 마지막 황손 이석 씨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황실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옥체험관이다. 장작불 땀 온돌방에 머물며 전통 궁중 한식과 궁중 다례 등 전통 황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객실요금은 2인 1실 기준으로 동락원은 7만~13만원, 승광재는 5~7만원선이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차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